

# ‘다음 세대에게 주는 선물’ 바우하우스를 만나다

‘근현대 디자인의 뿌리’로 불리는 독일 바우하우스(BAUHAUS)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세계 최초의 현대디자인 철학과 교육을 실천한 바우하우스는 각각 ‘건축’과 ‘집’을 뜻하는 바우(Bau)와 하우스(Haus)를 조합한 말로 ‘집을 짓는다’는 의미다. 1919년 설립된 1933년 히틀러에 의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폐교될 때까지 바우하우스는 20세기 건축과 디자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예술학교였다. 이들이 추구한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기능에 중심을 둔 현대 디자인의 출발이었다.

바우하우스의 교육은 초대 교장인 발터 그로피우스를 비롯해 바실리 칸딘스키, 전위 무대미술가인 오스카 슈레머, 색채 전문가 요하네스 이텐, 파울 클레 등 당대 최고 예술가들이 맡았다.

창립 100년을 맞아 바우하우스 탄생지인 독일은 물론이고 덴마크 디자인박물관 등 전 세계에서 다채로운 기념전이 열리고 있는데 ‘HUMANITY’를 주제로 진행중인 2019광주 디자인비엔날레(31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도 바우하우스 기념 전시가 개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다음 세대에게 주는 선물”을 주제로 열리는 2관 국제관에서는 바우하우스의 100년 역사 및 철학을 담은 콘텐츠와 그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현대디자인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현대 디자인의 역사적 흐름과 산업디자인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획이다.

2관을 기획한 강승민(Talk and Service 대표)씨는 “산업이 주도했던 지난 세기 디자인의 철학과 역할에 미친 바우하우스의 위대한 정신을 이해해 보고, 미래의 디자인 가치에 바우하우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인가를 생각해 보려했다”고 전시 의도를 밝혔다. 전시는 ‘바우하우스 상징 콘텐츠’와 ‘바우하우스 철학을 재해석한 현대디자인 콘텐츠’ 두 파트로 구성됐다.

바우하우스와 당시 역사에 대한 ‘연표’와 함께 전시장에서 눈에 띄는 건 그로피우스가 디자인한 독일 테사우 바우하우스 빌딩 상징 조형물 ‘미니 바우하우스’다.

또 바우하우스의 다양한 의자, 재떨이 등 가구와 생활용품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바우하우스 모더니즘의 상징적 디자인

바우하우스 100주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31일까지 기념 전시  
콘텐츠·철학 재해석  
교육프로그램도 진행



으로 불리는 마르셀 브로이의 ‘B40 의자’, 자전거 체인에서 영감을 얻은 ‘바실리 의자’, 상판과 서랍장, 선반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M45 책상’ 등이다. 그밖에 공예와 산업디자인이 결합한 대표적 램프인 바켄펠트의 ‘WG24’, 마리아노 브란트의 다목적 재떨이 ‘MB23E’ 등 그 시대의 산업기술과 가치를 담은 2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바우하우스 철학을 재해석한 현대 글로벌 디자이너들의 작품들도 흥미롭다. 한국 타이포그래피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안상수의 ‘이상&날개’는 이상 서체로 대표작 ‘날개’를 타일에 적어 설치한 작품이다.

또 이광호의 ‘자라나는 매듭’은 인간의 손에 의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끈과 매듭’을 표현한 작품이며 김영나 작품 ‘2’ 13’, 4.6 meter’는 바우하우스 교수 오스카 슈레머의 ‘바우하우스 댄스’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다. 또 김희원의 작품 ‘누군가의 창문’은 베를린-데사우-바이마르의 바우하우스를 촬영한 영상물이다.

3관 ‘애플박물관을 훑치다’를 연계관하며 독일 ‘브라운’ 수석디자이너였던 디터 램스나 아이폰 디자이너 조니 아이블의 디자인 등의 관련성을 통해 바우하우스 디자인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관람 방법이다.



바우하우스 정신을 나타내는 의자·조명 등 전시작들

바우하우스 정신에 기반한 독일 전통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7-9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바우랑 그리자’다.

바이마르 바우하우스 대학 마르쿠스 바이스베크 교수가 기획한 ‘종이카펫 직조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여러 모양의 무늬와 단체협업 작업의 결과물을 조화롭게 재구성해 커다란 종이카펫을 직조하는 과정이다. 안상수 교수가 기획한 ‘한글 자모 입체조형 프로그램’은 한글의 기본조형인 ‘원, 세모, 네모’ 등을 다양한 글자구성 형태로 바꿔 가며 새로운 조형언어를 창조해 종합된 입체조형물로 완성하는 프로젝트다.

오는 26일까지 본전시관 거시기술에서 매주 3회(금·일)씩 총 15회 진행된다. 전화로 예약하거나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시간을 칠하는 사람

16~20일 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이 16일부터 20일까지 예술극장 극장에서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 시범 공연을 선보인다.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연극으로, 지난해 ACC 창작스토리 콘텐츠개발 프로젝트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스토리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시간을 짓는 건축가(송재영 작)’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극은 ‘전남도청’ 건물과 건물이 간직한 세월을 같이 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다. 1930년 건축가 김순하의 설계로 지어지고, 미군정 시대인 1946년 흰색으로 도색되며, 2005년 무안으로 이전되는 등 전남도청과 관련된 역사를 전남도청 건물의 질감이었던 주인공 노인의 기억을 통해 풀어낸다. 이를 통해 비극적인 근현대 역사 속의 한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낸다.

이번 작품은 극장 공간을 단순한 극의 배경을 넘어 스토리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관객은 특수 제작된 이동형 객석을 이용해 작품의 흐름, 배우의 움직임, 이야기를 따라 극장 내를 여행하듯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다.

김민정 작가가 대본을 쓰고 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BEST 3, 대한민국연극대상 대상 등을 수상한 윤시중 연출가가 연출·무대디자인을 맡았다. ‘그때, 변홍례’, ‘위대한 놀이’ 등 작품으로 관객을 만나 온 ‘극단 하땅세’가 출연한다.

전석 2만원. 특수 제작된 객석으로 인해 매 공연은 90명의 관객만 참여 가능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윤시중 연출



김민정 작가

## 토테미즘을 통해 환경과 인간관계를 보다 ‘제7회 환경미술제’ 31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다양한 포즈를 취한 윤남웅 작가의 나무 조각 작품은 전시장에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를 찍은 오상조 작가의 사진과 탐스러운 붉은 사과를 찍 사진처럼 그려낸 박병우 작가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해변가로 떠밀려온 수많은 도자기 파편과 조개껍데기 등을 매달거나, 바닥에 깔아 둔 문학열 작가의 ‘공명-제의(祭儀)’는 신성한 느낌을 준다.

원시공동체사회의 ‘토테미즘’을 통해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진행중이다.

지난 2013년 ‘보존이 미래다’를 주제로 첫번째 ‘환경미술제’를 개최한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승규)이 오는 31일까지 ‘제7회 환경미술제’를 개최한다. 미술관이 자리한 장소가 국립공원이 무등산 자락인 점을 감안하면, 생태·자연 등을 주제로 꾸준히 환경미술제를 열고 있는 미술관의 행보는 의미있다. 미술관은 ‘지구 환경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왔다.

‘업사이클링 아트 디자인 두 번째 만남을 보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 ‘느림의 미학’, ‘자연을 거닐다’, ‘플라워 무브먼트 FLOWER MOVEMENT’ 등에 이은 이번 미술제의 주제는 ‘21세기 토테미즘’이다.

전시에 초청된 9명의 작가들은 다양한 매체로 신화적 접근을 시도하며 자연에 대한 현대적 시각을 제시한다. 미술관 1전시실에서는 금의수, 나진수, 문학열, 박병우, 오상조, 윤남웅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성연호, 최희원, 한정희 작가의 작품은 대미술관 야외에 설치했다.

이번 전시는 신령의 영혼을 담고 있는 운반체로 인류 문명의

메시지를 계승하고 있는 ‘토테미즘’에 주목한다. 현대사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환경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토테미즘’을 매개삼아 동·식물, 자연물의 공동기원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과 인간의 연결고리를 풀어냈다.

미술관측은 이번 전시와 관련해 “생명의 위로와 따뜻한, 살아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생명의 진실함을 느끼게 해주는 전시”라며 “이번 미술제를 통해 원시 ‘토테미즘’에서 배우는 자연에

대한 이해와 공감, 생명이 만들어 내는 경이로운 변화를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시 기간에는 도슨트의 전시 해설이 상시 진행된다. 교육프로그램 ‘나의 토테미즘 만들기’ 전시 기간 중 두 차례 진행했으며 오는 19일(오후 3시-5시) 무등현대미술관 교육관(ART PROCESS)에서 마지막 회차가 진행된다. 15명 선착순 마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제7회 환경미술제’가 열리고 있다.

## 광주·전남 조각 1세대 작가 김행신 전남대 명예교수 별세

광주·전남 조각 1세대 작가인 김행신 전남대 명예교수가 1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2년 고흥에서 태어난 고인은 독학으로 공부해 서라벌 예고와 서라벌 예대를 졸업하고 서라벌 중학교 미술교사를 거쳤다. 1976년 전남대(사범대 미술과)교수로 부임한 고인은 활발한 작업활동과 함께 광주·전남 조각계를 이끌 후학들을 길러내며 교육자의 역할도 했다.

1967년 국전 조각부에서 입선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대학 2년 때 국전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고 3회 특선으로 추천 및 초대작가가 됐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전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을 역임했다. 또 전남대 예술학장을 역임했으며 무등문화상(1991) 등을 수상했다.

브론즈, 대리석 등 다채로운 재료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다양한 작품을 제작해 온 그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담은 ‘정한수 떠돌고’를 비롯해 한국적 여인상과 가족상 등 토속적인 인물들을 조각으로 구현했다.

대표작으로 제2군 하사관학교 승전탑, 여수 순국선열탑, 해남 토발탑, 강산재 박유선 선생비, 88올림픽 광주조형물, 남도학숙 환경조형물 ‘여인’, 광주 무등빌딩 조형물 ‘무등의 여인’ 등이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